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모든 신들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 받는다

(시편 82 :1-8)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참 교회는 이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공의롭고, 더욱 바르게 살면서 이 날이 오기를 기도하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속이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이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마 22:17).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1. 신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니라”(1절).

신들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말하며 6절에서도 나오는 ‘신들’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① 인간 재판관 특히 이스라엘의 재판관

‘신들’이란 넓은 뜻으로 엘로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NIV에서는 elohim을 the judges,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판은 재판관으로 번역합니다. 이 같은 번역은 출 22장에서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요 10:34-36에서 본 시를 언급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공격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시82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유일한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자신임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인간 재판관을 말한 것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시82편을 이스라엘의 시민 지도자로 읽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재판관을 신들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공평한 판단을 할 경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신 것처럼 본 것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로 불렸고, 지극히 높은 자의 권위와 뜻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② 악마

시82편의 신들은 작은 신성을 의미한다고 해서 학자들 중에는 이들을 악마 또는 세상 권세 잡은 자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언급한 세상 통치자, 어둠의 세상이 주관하는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 하나는 구약에서 이 같은 권세를 신들로 언급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시82편이 이들 신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악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쟁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악마가 영물이라면 폼이 없으므로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에서 여기의 신들이 인간 재판관이라면 오히려 적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처럼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호출

권세자들을 임명한 하나님이 그들을 신들로 불렀습니다. 시편이 보여주듯 그들의 권세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에서 빌라도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께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한편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통치자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롬 13:5).

하나님은 통치자들을 누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권세를 제 뜻대로 남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백성중의 신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고치십니다.

3. 고발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낮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2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재판관에 의해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을 책망하십니다. 2-4절은 독립된 연처럼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전반부는 질문이며(2절), 두 번째 부분은 명령입니다(3-4절). 악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 고아, 불쌍한 자, 억눌림 받는 자를 방어하라는 것입니다.

통치자에게는 정의를 세우고 추진하고 유지하는 것과 억압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이것들을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실패했습니다.

4. 사형 언도

6-7절은 이스라엘의 불의한 재판에 영원한 죽음의 재판이 임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죽음은 영원한 죽음 또는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신들처럼 기능이 부여되었지만 그들은 실제로 신이 아니며 인간으로서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로 일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인은 8절에서 공의를 행하여 불쌍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방어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기도를 마지막 심판이라 부릅니다. 그 재판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 교회는 이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공의롭고, 더욱 바르게 살면서 이 날이 오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구정연휴 성경 읽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성경통독사경회

2월 7일(목) 08:00-8일(금) 12:00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구약성경 '잠언 - 말라기'를 범위로

제사장 교회로 세움 받은 서울교회는 휴일이 길게 이어지는 명절연휴마다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다가오는 구정연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만 우리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며 연휴를 말씀 안에서 보내게 된다.

이번 성경통독사경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이어진 '성경일천독 대장정'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게 되

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아직 성경일천독 대장정을 마무리 짓지 못한 성도들은 마지막 기회인 이번 성경통독사경회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한 약속을 이루도록 기도한다.

이번 사경회의 성경통독범위는 구약성경 잠언부터 말라기까지이며 우리교회 교역자들이 강사로 선다. 성경통독사경회 진행은 매 교시 당 4명의 교역자가 1장씩 번갈아 낭독하며 낭독자들이 읽는 동안 성도들은 일체의 잡담을 금하며 눈으로 글씨를 바로 보고 귀로 정확하게 들으면서 함께 성경을 읽는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는 전체가 "00장"이라고 힘차게 외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며, 끝부분에는 "아멘"이라고 외친다.

통독자들은 성경전체의 흐름(맥)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며 손으로 색연필을 들고 줄을 치거나 각종표시를 하면서 읽는다.(예) 주황색 : 경고의 말씀-회개, 빨강색 : 약속의 말씀, 파랑색 :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으로 표시하며 교제는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한다. 회비는 1만원이다(식비 및 간식비).



▲ 2007년 추석연휴 성경통독사경회를 마치고

우리교회 서해안 살리기 봉사 참여해

2월 1일(금) 오전9시 태안으로 출발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충남 태안군 주민을 돕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연을 회복시키는 '서해안 살리기 봉사'에 우리교회도 참여한다.

구제위원회(위원장 왕경래 장로)가 주관하는 우리교회 봉사대는 2월 1일(금) 오전9시 교회에서 출발하며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1063-6(망산)에서 하

루 동안 봉사활동을 펴게 된다.

기름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준비물 중 고무장갑, 면장갑, 마스크는 교회에서 준비하고 장화, 면제품은 현지에서 제공받는다. 대학, 청년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봉사가 가능한 모든 성도들은 1월 29일(화)까지 사무국에 신청하기 바란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이단사이비 실체” 특강

2월1일 (금) 오후 7시 - 웨스트민스터 홀
교구연합다락방으로

이단 사이비에 대한 무관심은 건강한 성경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무방비로 노출 될 수 있고, 지나친 관심은 건강한 영적 생활에 심각한 방해가 된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미혹케 하는 이단 사이비에 대해 바로 알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강을 열기로 하였다.

이번 특강은 2월 1일 (금)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박영관 목사(한국 기독교 이단종파연구소장)와 심영식 장로(한국 기독교 이단문제 연구소 이사장)가 강사로 선다.

성도들의 (전도회원, 선교회원, 전도대원, 교구의 모든 가족)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등부·디아스포라부 겨울수련회 열려

고등부: 1월31일(목)-2월2일(토)
연동강화수양관

디아스포라부: 2월1일(금)-2일(토)
서울교회

금주도 2008년 겨울수련회의 열기로 교회학교가 뜨겁다.이번 주에는 고등부와 디아스포라부가 겨울수련회를 갖는다.

고등부(부장 최차순 집사)는 1월31일(목)부터 2월 2일(토)까지 3일간 연동강화수양관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고등부'를 주제로 열리며 정수길 목사와 김용재 목사가 강사로 선다.

디아스포라부(부장: 양춘경 집사)는 우리교회당에서 2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도 품자!'를 주제로 한상은 목사와 박광일 전도사가 강사로 선다.

고등부 학생들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 탈북하여 우리교회에 등록한 디아스포라부 회원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기도한다.

성경일천독 대장정 성경통독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5독> (6교구) 강영순 집사 <3독> (6교구) 유을상 집사
<2독> (14교구) 원명희권사 <필사2회> (12교구) 최혜순권사
<1독>

(1교구)박미영 집사 백도환 집사 우승희 성도 이은주 성도 하영숙 집사 (2교구)김익환 집사 김인실 집사 최인 성도 홍승자 집사(3교구)고영숙 집사 김순영 집사 김은정 집사 오승민 집사 (4교구)이학명 집사 (5교구)김영희 집사 (6교구)김상열 집사 김시환 집사 서정애 집사 (9교구) 김숙화 집사 석은정 집사 이기곤 집사 이미라 집사 이성훈 집사 이영훈 집사 이은남 성도 (11교구)송미자 집사 조정옥 권사 (12교구)김중근 집사 이용자 권사 이재윤 집사 (13교구)김신영 집사 조민자 성도 최춘숙 집사 (14교구)박종숙 집사 (초등부)이광 이인 최유정 (중등부)이이레(고등부)김수훈(대학부)하상영

▶ 성경 통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사진이 5층 지도에 부착되지 않은 성도들은 교구 목사나 간사에게 확인바란다.

농어촌100교회운동 비전2020운동을 후원하는 성도 (농어촌100교회)

김동수 김수정(박태성) 박정자 박필순 백종명 원명희 은기장(김경숙) 이재봉(지은,지원) 정인주(김정애) 한나 전도회

(비전2020운동)
강석조 강영숙 권혁우 김관홍 김광민 김성준(김선영) 김영순 김영주2 김준용 김찬용 김희진2 (다음주 계속)

선교지에서 온 편지

방글라데시에 소망이 있기에 감사 드립니다

조남혜 선교사(방글라데시)

아샤(소망) 호스텔은 현지직원 2명과 10명의 아동으로 2007년도를 시작했는데, 2008년 1월 현재 현지직원 3명과 18명의 아동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매니저인 형제가 그만두면서 여러 가지 힘든 말들과 경찰에 고발 한다는 말까지 들었던 것과 이런 저런 문제로 아이를 호스텔에서 내보낼 때가 가장 맘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 아샤 호스텔 어린이들과 함께...

그 이후에 부모들이 고발한 것인지, 거짓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기자라고, 경찰이라고 하면서 무슨 일 하는 곳이나고 전화로 물어보고 협박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직 이곳에서 소망을 감당하며 계속 들어올 아이들의 장래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우리 아이들이 방글라데시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아샤 호스텔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있기에 감사 합니다.

저는 이즈음 새로운 사역을 기도하며 준비 중입니다. 호스텔과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모슬렘 작은 빈민가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방 2-3칸을 얻어서 오전에는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과 여성들을 모아 글씨와 말씀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학교 다녀온 아이들의

숙제 등을 돌봐주며 말씀과 특별활동 등을 하며, 휴일인 금요일에는 오픈 클래스라는 명칭으로 주일학교와 여성들 가정자택(교회)을 하려고 합니다.

모슬렘 나라의 특성상 모슬렘 지역에 처음부터 주일학교나 교회를 시작하려 들어가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공부방으로 시작해 동네에 도움을 주며 복음 사역을 시작하려고 기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전 20명, 오후 20-30명 정도 예상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방글라데시를 사랑하시고 또한 저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사랑하는 서울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와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선교지에 온 편지

미얀마 선교정탐을 위한 기도 요청

이재율, 박병진 선교사(캄보디아)

2006년 10월 미얀마 선교정탐을 계획하였다가 사탄의 방해로 취소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1년여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2008년 새해 들어 기도할 때마다 이번에는 미얀마를 가야한다는 마음을 주셨고, 이에 미얀마 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육사 동기생에게 메일을 보내어 현지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로부터 국내정세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소식을 접하고 '바울의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외치는 마게도나인의 음성'(행 16:9)으로 느껴져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미얀마 정탐 계획은 2.14(목)부터 18(월)까지 (1) 군선교 정탐: 실질적인 군선교 실태 파악, 기독교인 현지 접촉점 마련, 군부대 방문 시도 (2) 서울교회 파송 현지인 선교사 방문: 2007년 MEO 참가자로서 군선교 협력방안 모색, 서울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현지인 사역자를 방문하여 주일예배 참석하는 것 등으로 현지와 협조하며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며, 추후 구체적인 정탐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현지 방문까지는 비자 발급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천국시민양성- 2008년 겨울수련회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자

주은교(중등부)

2008년 겨울, 나에게 마지막 중등부 겨울 수련회를 갔다. 교회 수련회는 정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듯 하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가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라는 부장 선생님의 말씀과 나의 미래를 결정할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망으로 삼을지 생각하며 버스에 몸을 실었다.



올해 중등부를 지도하시는 이태훈 목사님께서서는 우리가 3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자세를 말씀해주셨다. 예배에 방해되는 것을 버리는 것,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 그리고 의복을 단정히 하는 것. 이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렸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첫날 저녁 집회에서는 "높은 명예와 부유함을 얻

는 사람"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배웠다. 또, 둘째 날 집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맡기는 심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사자굴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믿고 또 소망으로 삼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낭만적 그리스도인이던 나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각오 없이 두려움에만 갇혀 소극적이었던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형제에게 잘 대하는 것에도 소홀했던 지난 나의 과거를 눈물로 회개하게 된 것 또한 나의 변화될 모습을 위한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던 G.B.S 시간은 친구들과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다. 장기자랑, 롤링페이퍼 그리고 영화 감상까지 이번 수련회는 나의 신앙을 살찌우는데 소중한, 귀중한 시간이었다.

주차 모범으로 좋은 이웃을 만듭시다

주일 은마아파트 쪽 도로변 주차는 불법주차로서 이번 주부터 지속적인 단속대상이 됩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모범적인 주차질서는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행일치의 삶을 보여 주게 될 것입니다.

구민회관 주차장은 충분한 주차공간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량관리위원의 절대 수가 부족합니다. 더 많은 봉사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낮은 곳에서 섬김의 기쁨을 맛 보시기 원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남녀 구분 마시고 지하 1층 차량관리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차량관리부-

“교회로 와요!” 초청 UCC 대회 열려

총회 주관으로 2월29일 작품 공모 마감
5월4일(주)을 어린이, 청소년 총동원 주일로 선포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 다음세대를 품는 교회(요 10:10)인 총회주제에 맞추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며 5월4일(주)을 전국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 총동원 주일로 선포하였다.

또한 이를 전국에 알리고자 전국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교회로 와요!” 초청 UCC 대회를 개최한다. 교단내 전국의 교회학교 학생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2008년 5월4일을 전국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 총동원 주일 입을 알리고 모든 어린이·청소년을 교회학교로 초청하는 메시지를 담은 내용으로 제작하면 된다.

공모 마감은 2월29일(화)까지이며 3월20일(목) 수

상작을 발표한다.(개별통보 및 총회 홈페이지 공지) 공모 형태는 순수 창작 동영상 UCC(3분, 50Mb)로 다규,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모든 장르가 가능하다. 파일형식은 wmv, avi, swf형식을 권장한다.

접수는 우편으로 하며 CD로 제작하여 총회교육자원부로 제출하면 된다.(우: 110-470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416호 교육자원부 공모 담당자 앞)

제출시 반드시 교회주보 및 담당 교역자 연락처를 동봉하기 바람이며 시상은 우수작 4편을 선정하여 푸짐한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리교회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소프라노 허미경 교수의 독창으로 드러진다.

서울음대와 동 대학원 그리고 뉴욕의 Eastman School of Music 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허 교수는 버팔로 국제 성악콩쿨, 제시크 라이젤 독일가곡 콩쿨 등에 입상한바 있으며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반주는 우리교회 합창루야 찬양대의 피아니스트 안진희 집사가 맡는다.

총회선교사 오늘 2부예배 참석

총회세계선교부 주관 선교사 실무교육에 참석 중인 선교사들이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중, 오늘 우리교회 2부 예배에 참석한다.

예배 후에는 교회학교 각 부서와 교회내 각종 시설을 탐방한다.

또한 29일(화), 30일(수) 이틀간 총회 선교부는 카자흐스탄 선교대회를 우리 예배당에서 갖는다. 성도들의 참여를 권장 한다.

제5회 CBS 컵 크리스천 축구대회

2월19일(화) 접수마감

제5회 CBS컵 크리스천 축구대회가 열린다. 3월1일부터 5월5일까지 계속되는 이 대회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300여개 팀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역교회와 남선교회를 부흥시키는 한편 한국교

회의 일치와 연합의 장으로 마련될 이 대회에 우리교회 남선교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신청은 2월19일(화)까지 마감하며 C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31일(목) 북한구원운동 공동회장단 모임, 2월1일(금)군선교연합회 이사회에 참여한다.

■ 조수아 조 목사 휴대전화번호: 010-4101-5492

■ 주간식당봉사: 빌립선교회(1.27), 안드레선교회(2.3)

■ 금주의 식사 : 김광신 장로 이인선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천국시민양성- 2008년 겨울수련회 초대이 글

영적 거목으로 자라기를...

최차순 집사(고등부 부장)

고등부에서는 학업과 입시에 눌러있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겨울수련회를 강화도에 소재한 연동 강화 수양관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번 저희 고등부에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고등부!”(요10:10)라는 주제로 고등부가 영혼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영혼사랑의 열정이 충만하게 되어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자라나게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전문 사역자 김용재 목사님의 풍성한 말씀 잔치, 공동체 훈련을 위한 팀 빌딩(Team Building), 학생들의 번쩍이는 재능 콘테스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밀한 음성을 듣는 고등부 사랑의 밤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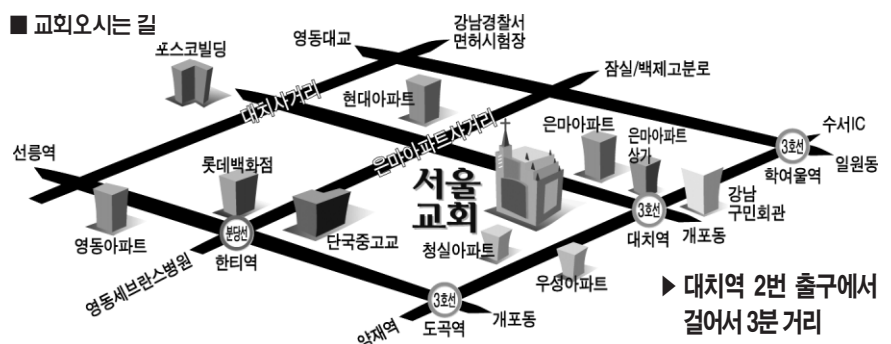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주님께 쓰임 받는 다윗과 같은 존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번 겨울수련회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께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번 수련회를 위해 적극적인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8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3. 사랑의 집 터를 속히 보여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소서.
4. 농어촌 미자립 교회 100교회 운동후원회 비전2020운동 후원자가 많이 생기게 하소서.
5.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